

# “절은 수행·사회복지 공간돼야”

## 동양최대 능인사회복지관 세운 지 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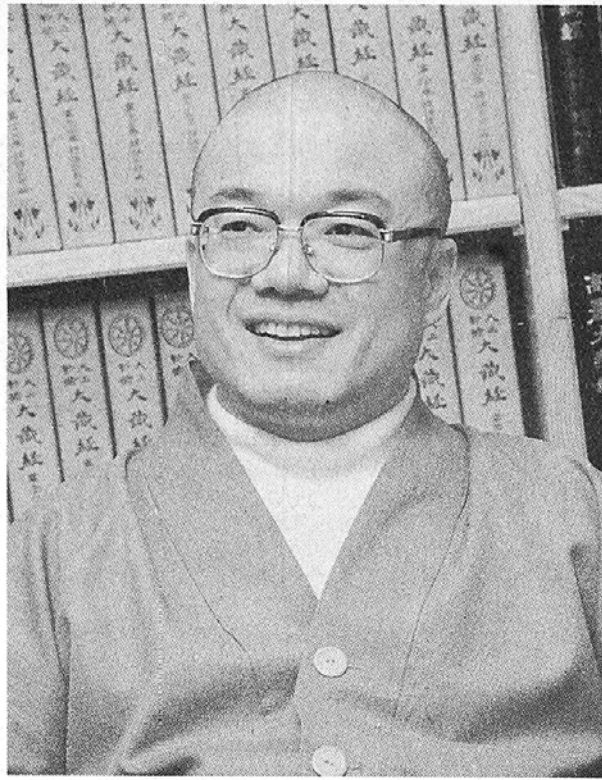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이 동양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다.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모습을 드러낸 능인복지관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복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세계적 수준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에 불교계가 뒤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능인복지관은 불교복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불사를 마치고 24일 열리는 개관식

—능인복지관은 지상 3층 지하 5층 연건평 3천0백평에 이르는 초대형 건물입니다. 복지관의 시설 또한 최선형으로 복지사업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능인선원이 출범된지 8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러한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땅에 불심이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불심을 일깨우기 위한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인류



하기란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중포교에 뛰어드는 스님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심포교를 시작하는 포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행자가 곧 훌륭한 포교사입니다. 또한 포교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루어 집니다. 혼자 잘했다고 나서면 따르는 이가 없습니다. 사부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부처님법을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능인복지관은 신도들이 재정 조직 관리 등 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하고 있어 오히려 신도들에 비해 재가편합니다.

—능인복지관의 신심과 원력이 살아있기에 능인복지관의 앞날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는 승려가 된 것을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것이 제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교육이 있기에 오늘의 능인복지관이 건립되었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종주국으로서 부족함없는 불교교육자 배출을 위해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내에 설립시켜 포교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당시만해도 도심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곳곳에서 포교당을 발견

이준엽 기자



하재웅 (대구교사불자회장) · 下

## 나의 수행일기

언젠가 ‘승만경’ 강의를 듣다가 그때까지 자리(自利)에만 급급하던 생활을 참회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나 개인만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한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우선 학년초 교내인사 때나 학교간 정보 인사 때에 소위 경합이 심한 학년이나 학교는 희망하지 않았다. 주위에서는 가끔 ‘등신’ 같은 것만 한다고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등신’을 바보 천치 정도로 알고 하는 말이지만, 나는 속으로 ‘참으로 내가 등신(等身)만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 보살의 바라밀행 강의를 듣고 ‘내게 보살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無畏七施가 있음을 알고 당장 실행하기로 했다. 따뜻한 눈길, 밝은 미소, 부드러운 말, 넉넉한 마음으로 주위를 대하니 거기 바로 극락이 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기막힌 진실을 체험하게 됐다. 주위의 사람들과 가르치는 아이들이 차차 부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니 어찌 잘나고 앞선 이만 눈에 띄어졌는가?

만 빠지지 않던 아내가 몇주일째 말없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궁극히 여겨 물어 보았더니 개종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그동안 말아오던 집사 직분도 사임하고 개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갑자기 아내가 큰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을 느끼며 역시 나보다 큰 그곳이었구나 생각하니 고맙고 반갑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의 두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하여 우리집 종교는 불교로 통합을 보게 되었다. 오늘도 나란히 108참회를 계속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 “사리사욕 버리겠다” 항상 서원

### 기독교 신자였던 아내 개종 ‘나란히 백팔참회’

이쯤에서 우리 가정의 종교문제를 얘기하고 글을 마쳐야 될 것 같다. 내가 구도회를 통해 불교에 심취하고 있으니 우리집의 종교문제는 양립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타산 지식으로 삼아 각자의 종교생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서로가 종교적 특단에 빠지지 않도록 충고와 격려도 했지만 어딘지 허전한 느낌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런 중에도 나는 아내와 같이 가끔 교회에 나가 주일예배와 교회행사에 참여했고, 아내도 나의 구도회 일원 10여년 동안 성실히 내조를 해주었다.

그동안 교회 주변을 기웃거리다 보니 배울 점이 많은 것도 알았다. 그 중에서도 교회운영에 신도들이 적극 참여할뿐 아니라 오히려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이는 직능별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게 보였고 주일마다 제정의 입술내역을 공개 한다던가 길동생같은 신도들의 가정예배를 당했을 때 목사님이 앞장서고 조직화된 신도단체가 나서서 내 일처럼 처리하는 것이며, 인사불란한 조직체계, 교회를 섬기는 열성적인 신심 같은 것은 내가 부러워하는 일들이었다.

이렇게 양립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어 오던 지난 1993년 가을에 커다란 변혁이 오고말았다. 일요일이

교 불이 일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 편승하여 불교관련 호신용 장신구 등이 그 종류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고, 서적마다 불교 관련 서적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는 경향대형 대형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리의 승용차에는 열주가 두세개씩 주렁주렁 걸리고, ‘불지의 집’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한다. 참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현상들 뒤에 또 다른 집단이기주의의 독소가 싹트지나 않을까? 또 우리 불자들의 신행이 지나치게 의식화로 흐르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은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吾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삼세의 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일체유심조임을 알아야 한다) 씩고 씩고 또 씩으며 되새겨 볼 말씀이다.

나는 오늘도 少欲知足을 신조로 모든 중생이 함께 보리심을 발하기를 서원하면서 아이들에게 인과법을 심어 ‘네 덕이요, 내 탓입니다’를 함께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출세하고 성공한 삶’ 보다는 ‘행복한 살림살이’를 위하여 우리모두 일상생활이 곧 기도가 되고 가정과 직장이 곧 기도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수요 인터뷰

준비에 여념이 없는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을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났다.

### 시대따라 불교역할 변화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을 축하합니다. 4년전 불교뿐 아니라 사회복지계의 주목속에 첫삽을 뜬후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감회가 어떤지요.

▲수행자에게 마(魔)는 수행을 도와주는 훌륭한 도반입니다.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수많은 사회적 제도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7만명의 능인불자들은 수행의 마음으로 한발한발 지나왔습

가 낳은 최고의 수행자이면서 위대한 교사이지 않습니까. 능인선원은 4개월 과정의 능인불교학교를 운영하고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소양과 기초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신심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능인복지관 건립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9월에 개학한 20기 능인불교학교에는 무려 3천명의 학인이 입학했습니다. 그동안 졸업한 학인이 3만여명입니다. 이들이 부처님과 하나되는 기도를 하는데 어찌 복지관 건립불사가 원만히 행되지 않겠습니까.

## 7만 능인가족 보리심 ‘원만회향’ 원동력

### 교양대 소양교육도 큰힘... ‘1사찰 1복지시설운동’ 확산필요

니다. 되돌아 보니 한치도 흐트러짐없이 정진해온 능인불자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능인선원은 신도가 늘면서 새로운 집을 필요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들이 원하는 것은 격을 갖춘 사찰이었을 텐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절은 이고득락(離苦得樂)하는 공간입니다. 절에가면 마음이 편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희희의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현대에는 절에도 서비스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절 자체가 모두 봉사하는 공간이 되었을 때 불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찰등 각종 종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거대한데 비해 사용하는 시간은 일요일등 특정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입니다. 귀중한 땅과 건물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능인선원은 종교계의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수행과 사회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복지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는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정신적 방황과 소외된 그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종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동안 사회복지에 소홀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불교계가 펼쳐야 할 사회복지 가운데 능인복지관이 펼쳐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외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으로 운영만 맡으면 창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불교계가 펼쳐야 할 사회복지사는 철저하게 사찰의 수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교계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불교사회복지입니다. 따라서 1사찰 1복지시설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자 하면 모두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질 높은 문화복지 수요가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도심원으로 개발돼 중산층이 밀집돼 있는 강남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부의 편재로 인한 그릇된 소비문화의 만연과 윤리관, 생활자세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능인복지관은 강남지역 주민들의 정신계도에 힘을 기울여 고소득층의 사회복지 및 문화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사부대중이 모두 포교사

—스님은 한국불교계에서 포교의 선구자를 이룩한 독보적 존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1980년 소위 언론포교할 당시 해직기자로 뜻한바 있어 출가한 이후 누구보다 먼저 도심포교를 펼쳐왔는데 능인선원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선방에서 화두에 들어가 도심속에서도 선공부를 할수있다는 확신으로 86년 서울 서초동 상가에 작은 방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능인선원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선공에만 있다가보니 대중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8개월간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 신문을 살살이 뒤졌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니 부처님말씀을 전하는 방편이 보였던것입니다.

—당시만해도 도심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곳곳에서 포교당을 발견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립니다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해운대 · 검문소 · 기장 · 울산  
송정 · 용궁사  
송정 해수욕장 · 수산진흥원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0) 722-7755

水子靈 천도를 위한

# 백일기도 (죄업소멸) 봉행

떠도는 어린 넋들을 위하여

수자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수자 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염불행자들의 염불정진을 위한 제5차 백일 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수자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넷째, 불보살의 큰 서원에 의탁하여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삶의 고통과 죄업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의 다정한 빛이 되어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미타기도에 여러분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장수명 죄경 ②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③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④ 백일기도를 위한 일일수행법과 수자영가축원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일 시: 1995년 12월 7일(입제) ~ 1996년 3월 4일(회향)

■ 동참회비: 기도금(3만원) 영가위패 1인당(5천원)

■ 온 라 인: 조흥은행 322-06-008780(석원점)

■ 연 락 처: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546-840) 전화 (0694) 52-1755 팩스 (0694) 53-0009

지장보궁 염불선 도량 대원사  
주지 釋玄藏 합장